# THE MAN WHO SAW ME



Ferdinando Frega

# GILLETTE: 나를 알아본 남자

나는 멘토를 가질 만큼 운이 좋았던 적이 없다.

내 삶의 첫 27년 동안 나는 거의 오직 여자들만 만났다. 온갖 기질의, 온갖 감수성의, 온갖 지적·인간적 품격의 여자들. 어쩌면 삶은 그저 하나의 기본적인 진실을 일깨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도 대단한 아들.

그리고 1992년이 왔다.

교육 분야에서 일하던 코센차 출신의 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정치 캠페인이 — 그는 훗날 모든 예상을 깨고 이탈리아 국회의원이 된다 — 많은 것의 흐름을 바꾸었다. 정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날 기회를 얻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 준 것은 그들이었다.

나는 소속으로 세워진 세계의 초심자였다. 아무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질문은 언제나 같았다.

“왜 아무도 그를 입문시키지 않았지? 왜 아무도 그를 거두지 않았지?”

그들은 나를 아직 아무도 다듬지 않은 거친 돌로 보았다.

여러 방향에서 초대와 접근과 제안이 왔다. 그것들은 흔히 문화나 역사나 진정한 내면의 성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 환경에서 나왔다. 복종과 지배, 그리고 권력의 단순한 행사로 유지되는 세계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존중하며, 그러나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방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Gino Domanico였다. 진정한 삶의 스승이었다.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대학교수였던 그는, 가르칠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드문 소통의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단 몇 분의 대화 끝에, 나는 그때는 터무니없어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무언가를 이해했다.

나는 방금 내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맡기게 될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것은 결코 구애도 아니었고 형식적인 수업도 아니었다. Gino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영혼과 정신을 읽을 줄 알았다. 그에게 나의 영혼은 아마 펼쳐진 책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전통에서 왔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한 문장을 남겼다.

"언젠가 네가 나를 정말로 보게 되면, 가림막이 있든 없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초심자였지만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

나는 빛을 청하며 신전의 문을 두드리는 한 남자였다.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 우리 둘 다 전력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으니까 —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빛.

Gino가 환영의 첫 몸짓을 했다.

그다음에 Tonino가 왔다.

그 기관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그는, 나를 잠깐 지켜보더니 내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도 그를 먼저 알아보지 못했지? 그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코센차에서 일하고, 레조칼라브리아에서 태어났어. 세상의 절반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아끼지. 그리고 그는 우리 사람이야. 유일한 차이는 가톨릭 세례 이후로 다른 어떤 입문도 받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그 대답으로 충분했다.

나는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과부의 아들들에게 마련된 길을 시작하도록 허락받았다.

그 순간부터 Gino는 한 번도 내 손을 잡아 이끌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과 몇 마디 말이면 충분했다. 그와 함께라면, 침묵 하나가 500페이지짜리 책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나는 의자들 사이에서 그를 발견했다.

말없이. 거의 엄격하게.

그곳은 특별한 자세를 요구했다. 먼저 안으로, 그다음 밖으로.

성찰의 방 바깥 공간인 잃어버린 발걸음의 홀에서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 그는 별말 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둘은 같은 감정을 느꼈다.

한 번도 바래지 않은 감정.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여기 있다.

어쩌면 어떤 만남들은 과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만남들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입문시킨다.

TFA
Ferdinando Frega

추신: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모자이크의 진짜 조각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사이 몇 시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해 여름 Gino는 바닷가의 자기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초대했고, 어느 저녁 나는 마침내 그의 문을 두드릴 기회를 얻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다정함으로 나를 맞아 주었고, 바로 그때 나는 그의 삶의 여인 Teresa를 만났다.

그녀는 젊고,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품위가 있었다. 그녀는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몇 분이면 충분히, 생기 있는 지성과 함께 자기 앞에 선 사람을 이해하는 보기 드문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은행에서 일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 뒤 몇 년 동안 나는 그녀를 잘 아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놀랄 만큼 비슷한 말을 들었다. Teresa는 남다른 직관과, 사람의 신뢰도를 거의 즉시 가늠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생겨났다.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깊이 아낀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물론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밑에 깔린 애정은 같았다.

나는 아껴 줄 마음의 누이를 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지만, 나는 그녀도 비슷한 무언가를 알아보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그 만남은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시간이 한 번도 반박하지 못한 하나의 확신을 굳혀 주었다. 좋은 멘토는 거의 언제나 그의 곁을 걷는 여자의 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녀는 어머니를 대신하지도 않고, 어머니와 혼동되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인간적인 초상을 완성한다.

그리고 나의 멘토는 그런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

*안부를 전하며,*
*Ferdinando Frega*